

TV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Channel, Program Name, Time, Description, and other details for various TV shows on channels like KBS1, KBS2, MBC, and KBC/SBS.

조선시대 왕의 애뜻한 첫사랑 이야기

MBC 수목극 '해를 품은 달' 내일 첫선

'성균관 스캔들' '공주의 남자'의 뒤를 잇는 로맨스 사극이 안방극장을 찾아온다. 오는 4일 첫선을 보이는 MBC 수목드라마 '해를 품은 달'...

영리하고 자신감 넘치는 왕세자 이현은 첫사랑인 세자빈 연우가 갑작스런 죽음을 당하자 충격을 받고 차갑고 냉소적인 인물로 변한다.

'성균관 스캔들'의 원작자 정은결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했지만 '성균관 스캔들'보다 비장하고 애절하다.

한가인이 연기하는 연우는 대왕대비 윤씨의 사주를 받은 무녀 장씨의 주술로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다.

2일 오후 여의도 63시티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김수현은 "원작을 보고 이현 역할을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제까지 왕들과 다른 왕을 보여드리

겠다"고 말했다. 연리하고 자신감 넘치는 왕세자 이현은 첫사랑인 세자빈 연우가 갑작스런 죽음을 당하자 충격을 받고 차갑고 냉소적인 인물로 변한다.



〈왼쪽부터 송재화·정일우·김수현·송재림〉

원의 이복형이자 왕위 계승서열 1순위의 왕자 양명군 역은 정일우가 맡았다. 정일우는 "전작 '꽃미남 라면가게'에서는 재벌 2세였는데 왕족으로 신분이 상승해서 기분이 좋다"며 밝게 웃었다.

외로운 인물이다. 사랑을 얻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왕 앞에 섰을 때 가면이 벗겨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원의 후위무사 윤은 모델 출신 배우 송재림이, 염을 연모하는 소녀 검객 설은 윤승아가 연기한다.

김민서는 "중전의 자리에 오르지지만 왕의 사랑을 받지 못

했다. 송재림은 "윤이 좋았다. 내 내공에 비해 좋은 역할을 맡았다"며 "이번 작품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배우가 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6년생 삶의 향기에 흠뻑 젖는 하루가 되겠다. 48년생 비교해 보면 곧 우열을 알 수 있으리라. 60년생 이의 추구보다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더 값있다.

42년생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노라면 기회는 다가올 것이다. 54년생 일관성을 가져라. 66년생 새롭게 접근하고자 하는 이가 있으나 인연이 바빠다.

37년생 요령껏 행하면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49년생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라. 61년생 실수란 방식했을 당시의 바로 그 순간에 발생한다.

43년생 큰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55년생 오랜 점이 인생에 있어서 파스한 화살불임을 알게 될 것이다. 67년생 길사가 진행될 수 있다.

38년생 처음에는 당할 수 있으나 차츰 회복세를 띠게 된다. 50년생 고상한 만큼의 보람이 있을 것이다. 62년생 충돌을 발전 위한 진통이 될 것이다.

44년생 잘못 끼운 단추가 끝까지 속 속인다. 56년생 가고 역할을 어떻게 하나에 따라 대우가 달라질 것이다. 68년생 친지와 함께 돈을 다루는 것은 마무리가 좋다.

39년생 마무리를 잘하자. 51년생 인생의 최대 행복은 일가가 화락하게 사는 일이다. 63년생 과거에 자신과 충돌했던 이가 이제 와서 도움을 주는 인상이 된다.

45년생 파스한 햇살이 삶의 골짜기를 포근하게 감싼다. 57년생 겸손과 자기 책임의 세상 이치를 생활화 하자. 69년생 곧 기쁨의 시간이 찾아온다.

40년생 분수를 지키면 커다란 흥사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간다. 52년생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속히 취하라. 64년생 신중함 하루가 되어야 할 것이다.

46년생 백사가 흥왕하라. 58년생 왕성한 활동을 하는데 소모되는 지출은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 70년생 대중성에 연연하지 말고 기본적인 이치에 따라라.

41년생 표리부동하므로 현명하게 대처해 나아가야 한다. 53년생 현재의 어려움을 뜻뜻이 견뎌내야 하리라. 65년생 깊은 성찰 끝에 해안이 열릴 것이다.

47년생 다소의 쓰러림이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59년생 잘못은 경솔하고 오만한 데서 오는 법이다. 71년생 해복은 감정을 버리면 새로운 점이 쌓인다.

EBS program schedule table listing various show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 Plus 1 and EBS Plus 2 program schedule tables listing additional shows and their broadcast times.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What's new?' and '班門弄斧(반문농부)' with Korean and English text, audio icons, and a QR code.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니하오 풍구위' and '靠山吃山, 靠水吃水' with Korean and English text and a QR code.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오하오우 니혼고' and 'あしたが大変ですね。' with Korean and Japanese text and a QR code.